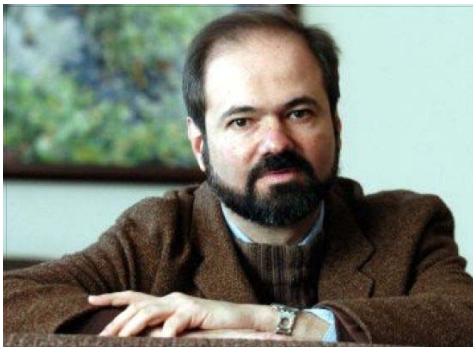




■ 레드 카펫: 멕시코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마약테러리즘¹⁾

후안 비요로(Juan Villoro)



후안 비요로

앤디워홀이 단언하는 것처럼 미래에는 모든 이들은 15분 동안만 유명세를 치를 것이다. 이 행복의 유토피아는 스펙터클 사회에서 의미를 갖는다. 멕시코의 정치 문화는 이와는 반대 방식으로 행복을 공고히한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운명을 성취하는 것은 명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비밀속에서 완성된다. 멕시코의 유토피아는

15분동안 불처벌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금껏 지속되어 왔다.

1929년에서 2000년까지 71년 간 제도혁명당(PRI)은 민주적인 선거에서 패하지도 않고 승리하지도 않은 채 집권해왔다. 제도혁명당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혼동하는 집단들이 교체되어가며 영속해왔고, 장터에서 내기를 하는 수준으로 기대감을 유지해왔다. “이번 정부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았다

1)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서울대학교 BK21 스페인어권 전문인력 양성사업팀 주최로 2011년 6월 7일 개최된 초청강연 “멕시코 문화와 대중매체: 폭력과 자유 사이에서”의 강연 원고임.

면, 다음 혁명 정부는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계산서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제대로 지불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멕시코식 통치 방법은 어둠의 문법을 통해 토착어를 변화시켰다. 정치는 ‘어둠’ 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고, 중요한 해결들은 어둠속에서 이뤄졌다. 빛의 도래는 위험한 것이 되어버렸다. 공모자는 밤의 어둠의 비호를 받아 움직여야만 했고, 적보다 더 일찍 손을 쓰기 위해서 서둘러야만 했다. 마르틴 루이스 구스만은 (1920년대 혁명 장군들의 모습을 더없이 잘 그려낸 작품인) 소설 《카우디오의 그늘》에서 이렇게 썼다. “먼저 쏘는 자가 먼저 죽인다. 그렇다면 멕시코의 정치는 권총의 정치이며, 단 하나의 동사, ‘madrugar (경쟁자보다 더 먼저 손쓰다)’ 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권력 행사라는 어둠속에 쌓인 이 직업은 거의 한 세기 동안 해독 불가능한 정치적 가치에 의존해왔다.

제도혁명당의 독점이 끝나고 불처벌 관련 법령들은 폐기되었고, 다른 법령들로 대체되지도 않았다. 혼돈의 시기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권이 바뀐 지 8년째인 멕시코는 피와 총알이 난무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폭력이 지배하게 되자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관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들을 해체되어버렸다. 언론 매체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유의 여지는 늘어났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것이 되어버리는 환경에 처했다. 국경없는 기자회²⁾에 의하면 멕시코에서 납치되고 살해당한 기자들 수는 이라크를 능



2) Reporters sans frontières: 프랑스의 비정부단체. 언론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기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한 단체이다.

가했다. 이 새로운 풍경들 속에서 사건들은 가상과 혼동된다. 원칙의 부재가 실용주의나 긴급한 조치로 위장되는 표류하는 상황이다. 물물교환은 가면을 쓴 채 이뤄진다. 성직자들은 할리스코에서 국민행동당(PAN)을 지지하고, 그 대가로 상당한 적선을 챙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교육자 노조는 펠리페 칼데론에게 백만표 이상을 제공하며, 국가 안보같이 매우 중요한 정부 영역에서 관직을 얻는다. 독점 기업들은 2006년 대통령선거 캠페인 동안 언론을 통해 더러운 전쟁을 수행하며 좌파 후보를 ‘멕시코에 대한 위협’으로 묘사하고, 그 대가로 경쟁을 제거하는 계약을 성사시킨다. ‘판타스틱 포’³⁾, ‘실세들’의 방식으로 그들은 어둠속에서 지배한다. 제도혁명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졌을 때도 불처벌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이 견들 속에서 흩어져버렸다. 이것은 ‘적어도 도둑질 하나라도 잘 했던’ 여당의 전제주의에 대한 이상한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멕시코 정치의 폐쇄적인 전통에서 주인공들은 무대에서 내려왔고 폭로도 하지 않고 논란을 일으킬만한 일기도 남기지 않은 채 죽어갔다.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고, 얼굴표정 보다 더 중요한 위계질서는 없었다. 기자의 임무는 거의 이해하기 불가능한 것 같은 기호들을 해독하는 것이었다. 매 동작은 투우 경기에서의 칼 휘두름이나 가부키 극의 동작인 양 분석되었다. 대통령의 기분이 좋으면 월요일 아침식사마다 우에보스 란체로스(Huevos rancheros)⁴⁾를 주문했고, 식사를 하다 그가 내부부 장관에게 말 한마디 건내지 않은 채 콩소스를 먹으면 내각 개편이 임박했다는 의미였다.

오늘날 정치에서의 음식은 매우 다른 코스로 진행된다. 우리는 모든 이들이 음식에 열광하는 동시에 소리를 지르고, 남은 음식은 밀폐용기에 싸가는, 뷔페를 앞에 두고 있다.

통치력의 위기는 메시지의 위기와 상관관계가 있다. 행정부는 더 이상 정보의 의제들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 70년 동안 선언하는 것이 통치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복지에 대한 약속은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지금 대통령은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뒤 다음 살인 사건을 기다리는 순간에 몇 초 동안 뉴스에 나와 기관총이 난무하는 가운데 공식적으로 눈을 한번 깜박거릴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직범죄는 새로운 지배적 상징을 제공한다.

3) Fantastic Four: 1961년 시작된 미국 만화 시리즈. 4명의 슈퍼히어로들이 주인공이며, 이후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영화 등으로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4) 옥수수 토르티야에 달걀을 얹고, 매운 토마토소스를 뿌린 뒤 으깬 콩소스를 곁들인 멕시코식 아침 식사 요리.

마약밀매는 종종 두 번의 충격을 준다. 실제 세계와 뉴스에서의 충격인데, 뉴스에서는 다른 의견은 거의 찾기 힘들다. 텔레비전은 클로즈업과 느린 카메라로 범죄자들의 개성이 한껏 드러난 장면들을 유포시키며 공포를 배가시킨다. 각 카르텔의 ‘서명’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목을 자르는 카르텔이 있고, 혀를 자르는 카르텔도 있으며, 자동차 뒷 트렁크에 시체를 두거나 그 시체를 담요로 둘둘 싸두는 이들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범죄자들은 자신들의 처형장면을 녹화해 그 비디오를 언론 매체에 보내거나 세심한 편집을 거친 뒤 유튜브에 직접 올린다. 미디어 공간은 마약범죄자들의 면세지역이며, 그곳은 현실에서 저지른 가해가 공포의 인포머셜⁵⁾로 전환되는 곳이다.

카르텔들은 카프카가 단편 〈유형지에서〉에 묘사한 피의 합법화를 적용한다. 희생자는 자신이 어떤 형을 받게 될지 알지 못한다. 희생자는 자신의 육체에 무엇이 가해지는 가를 보며 자기의 형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가 미리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부조리한 것이 된다. 마약범죄자들은 잔인함(crueldad)의 담론에 기대고 있으며(‘응고된 피’라는 뜻의 단어 curor는 그 어원이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피’라는 뜻이다), 그 담론에서 상처들은 희생자에게는 형(刑)이 되고, 증인들에게는 위협이 된다. 마약범죄자의 ‘혈통주의’는 법정 에피소드들을 카프카식으로 뒤집는 것에 기대고 있다. 형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재판의 시작이며, 다른 사람들도 그 법정에 불려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료타르는 〈유형지에서〉에 대해 “네가 피를 흐르도록 하지 않는다면 법은 해독 불가능하다”라고 썼다. 이것이 조직범죄의 암묵적인 구호이다. 그 담론은 완벽하게 해독이 가능하다. 반면 다른 법, 즉 우리가 속한 사법체계속의 법은 흐릿해졌다.

마약문화는 나르코코리도⁶⁾를 통해서 그 영향력의 반경을 넓혔다. 많은 경우 그 곡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돈을 지불해 만들어졌다. 혼란스런 환경에서 범죄와 연루된 가수들은 왜곡된 카리스마를 찬양하고 민중의 도덕을 능욕하는 불법의 미심쩍은 명성을 향유한다. 그 곡들의 우울한 아코디언 소리는 약탈의 영웅담의 배경음악이 되어 마약밀매자들은 양귀비를 재배하는 공동체한테 가로등과 고속도로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로빈 후드와 비교되기도 한다. ‘나쁜 풀’을 운반하는 자들이 처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

5) informercial: 정보를 매우 많이 제공하는 상품 광고 형식.

6) narcocorrido: 마약이라는 접두어 narco에 멕시코 북부의 민요인 코리도corrido를 결합한 단어. 이 노래들은 마약갱들의 삶을 다룬다.

에 대해 노래를 부르는 것은 흥미롭거나 재밌고, 혹은 민속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상 이 곡들은 경제의 10%(석유가 차지하는 비중과 동일하다)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으며, 매일 수십 건의 살인을 유발한다. 그 노래들을 범죄세계의 문서로 간주하게 되면 그것들은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보인다. 이상하게도 나르코코리도는 대중음악을 틀어주는 역에서, 심지어는 문학 선집에서도 공간을 획득했다. 불명확한 다문화주의의 이름으로 몇 년 전 어느 작가 그룹은 두 곡의 나르코코리도가 한 교과서에서 삭제되었다며 항의했다. 그들의 불평은 그 노래의 가사들이 멕시코가 처한 문제를 다루는 수업이 아니라 아마도 네르보⁷⁾나 라몬 로페스 벨라르데⁸⁾를 대체하며 문학수업에서 다뤄졌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마약범죄자는 그들이 위협하거나 돈을 지원하는(이 용어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서로 치환할 수 있다) 라디오 방송국들의 동조를 얻고 있으며, 범죄를 전통의 한 형태로서 과잉 해석하는 인류학적 관점의 공감대도 받고 있다.

순간의 테크놀로지: 공포는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임스 그레이엄 벨러드⁹⁾의 관점처럼 20세기의 중요한 사실은 무한한 가능성의 개념이 등장했다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이 술어(述語)는 과거를 지불 유예하는 개념-즉, 과거는 이미 적절하지 않으며, 어찌면 죽었다-과 접근 가능한, 무한한 가능성들은 현재에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기술은 욕망을 즉흥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관습들을 바꾸어 놓는다. 소비의 배급망들과 놀랄 정도로 저렴한 발명품들은 20세기를 기분전환을 위한 충동으로 이끌고, 거기에선 욕망의 충족이 너무 즉각적이라 롤링 스톤즈가 '나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I can't get no satisfaction)' 라고 노래하는 것이 아이러니 할 정도이다. 계획된 쾌락의 시대에 욕망을 채우지 않는 때는 그것이 사악한 불평이거나, 혹은 멋쟁이의 특이한 열망인 경우 뿐이다.

속성으로 욕망을 충족하려는 이 무자비한 경향은 멕시코에서 불처벌과 연맹을 맺었다. 마약범죄자들의 세계에서 현재가 우위를 점하는 것은 빠른 돈,

7) 1870-1919. 멕시코 시인.

8) 1888-1921. 멕시코 시인.

9) James Graham Ballard: 1931-2009, 영국 작가.

고도의 범죄 기술, 비밀의 지배라는 삼각관계를 통해 이뤄진다. 과거와 미래, 전통의 가치와 미래의 희망들은 그곳에서 의미를 상실한다. 거기에는 단지 ‘여기’와 ‘지금’만이 존재한다. 잘 풀릴 경우 다섯 명의 아내를 둘 수 있고, 천 달러에 살인청부업자를 사고 이 천달러에 판사를 매수할 수 있으며, 베르사체 셔츠와 금덩이로 만든 기린, 아마존의 벌레들을 닮은 보석들, 삼십만 달러짜리 시계, 터키석 푸른색의 타조 가죽으로 만든 부츠의 알록달록한 공포 사이에서 취향과 규범의 바깥에서 살아가는, 자의적 결정이 지배하는 제국.

새로운 행동 양식들(인터넷에서 아이폰으로, 컴퓨터에서 오가는 즉각적인 돈의 존재, 인신매매, 글로벌 브랜드들)이 열망하는 무한함이라는 보상은 범죄 이야기의 어두운 부분을 비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 누구라도 15분동안의 불처벌이 가능하다.

루이스 아스토르가¹⁰⁾와 롤란도 곤살레스 발데스가 기록한 것처럼 50년 전 마약거래는 멕시코 북서부 지역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주제였다. 오늘날 이는 전 지구적인 돈의 흐름과 연관을 맺고 있다.

돈을 뿌려대는 마약범죄의 급증하는 위협에 대한 심리적 반응은 위협에 등을 돌리고, 그것을 단지 현재만 존재하는 빛이 없는 공간, 검은 구멍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었다. 그 검은 구멍은 매일 그 영향력을 넓히고, 사건의 지평을 덜 중요하게 만들어버리며, 시간이 존재하고, 현재가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결과가 되는 이상한 국경선이 된다.

부인(否認)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해온 한 사회에서 마약밀매는 문화와 정보 전쟁에서 승리했다. 청부업자들은 서로를 죽인다. 범죄세계의 뉴스들은 허용할만한 일상이 되거나 무심히 악을 사소한 것으로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 거리감의 효과를 만들어냈다. 뉴스의 희생자들은 항상 모르는 사람들, 왜 자신들의 목이 잘려나갔는 지 자신들만이 아는, 멀리 있는 사람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다.

매일 아침 신문들은 피로 물든 점수판을 내보낸다. 어제 유카탄에서 12명의 목잘린 사람들은 오늘 라마르케사 국립공원에서 처형당한 24명에 의해서 대체된다. 하지만 생존 본능은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들을 정신적으로 고립시켜왔다. 제거되는 이들이 ‘그들’인 이상 ‘우리들’은 무사할 것이다.

마약범죄자들은 너무 오랜 시간동안 엑스파일, 평행선을 이루는 현실, 알

10) Luis Astorga: 멕시코 사회학자.

수 없는 차원, 검은 구멍으로 존재해왔다. 멕시코 독립언론의 대부인 홀리오 스페러 가르시아는 현실을 드러내는 책, 《태평양의 여왕》을 막 출간했다. 몇 달동안 스페러는 산드라 아빌라가 2007년 9월 28일부터 형을 살고 있던 감옥을 방문했다. 언론매체에 ‘남쪽의 여왕’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스페의 소설속 인물의 이름이기도 하다¹¹⁾-으로 소개된 아빌라는 대중의 눈을 사로잡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아름답고, 강하고, 도전적인 여성으로, (유치원에서의 사고로) 자전거에서 떨어져 골절상을 입은 대통령, 큰 유니폼에 파묻혀(그의 몸에는 모든 옷들이 XL처럼 보인다) 작아져버린 한 약한 대통령에 의해 붙잡혔다.¹²⁾ 아빌라는 작은 발로 서있는 대통령에게 포기할 수 없는 먹잇감이 되었다. 그녀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마약밀매의 흑독한 충격들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선전 전략의 일부이다.

산드라 아빌라가 스페러에게 털어놓은 것처럼 그녀의 범죄 가담은 덜 직접적이었고, 그녀를 체포한 이들이 말하는 것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44세가 되도록 그녀는 마약밀매꾼의 삶 외에는 알지 못했다. 소피아 코플라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법한 태도로 아빌라는 자신이 받을 담그고 있는 그곳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유명한 카르텔 두목들 모두를 종종 방문했고, 범죄자 애인에 의해서 납치된 적이 있으며, 마약밀매자와 두 번의 결혼을 했다(그 중 한 명은 부패한 소령이었다). 그녀는 10대인 아들이 납치되는 일을 겪었고, 자기 발 아래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으며, 모든 파티, 모든 보석, 모든 자동차, 몇 주밖에 지내지 않을 모든 대저택, 현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과도함을 누려왔다. 그녀는 과달라하라 자치대학에서 한 학기동안 저널리즘을 공부했지만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인 홀리오 스페러가 누구인지 몰랐다. ‘바이오스피어 2000’ 같은 도시계획 단지에 사는 이들처럼 그녀는 44년 동안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살았다.

하비에르 마리아스는 미국 드라마 〈소프라노 가 사람들〉¹³⁾가 갱스터의 사적인 삶을 보여주고, 마피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자식들 교육문제

11) Arturo Pérez-Reverte: 1951-. 스페인 소설가. 2002년도 출간된 소설 《남쪽의 여왕》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 두목 테레사 멘도사의 이야기를 다룬 픽션이다.

12) 산드라 아빌라 벨트란은 2007년 9월 28일 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정부 때 체포되었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2009년 9월 자전거 사고로 왼쪽 어깨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13) The Soprano: 1999-2007년까지 지속된 미국 드라마. 뉴저지의 마피아인 토니 소프라노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로 속을 썩는 이들인 그 공간에 기이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죽을 위험없이 마피아 세계로 들어가보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언급했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마약갱들의 삶은 마피아 세계 ‘바깥’을 제거하고 모든 것을 자신의 사적인 삶으로 가져온다. 개발된 주거 지구를 통째로 사는 것, 컨트리클럽, 축구 경기장, 경찰 조직, 산드라 아빌라가 거주할 수 있는 은밀하고 외딴 방 같은 것 등.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관객들이 이미 매수되었기 때문에 가식적으로 굴거나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

산드라 아빌라는 대통령이 긴히 필요로 하는 악의 전략을 닮은 것이 아니라 좀 더 공통적이고 끔찍한 것, 모욕의 파트너라는 점에서 닮았다. 그녀는 한 순간도 합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채 충족되고 완전한 삶을 살아왔다. 가장 놀라운 점은 범죄 조직에서 그녀가 갖는 지위가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이루는 모든 하위문화의 방식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왔다는 것이다 (그녀의 유일한 불만은 남자가 아니어서 좀 더 존재감을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어린 여자아이에서 과부로, 그녀는 몇 년전부터 온전히 태평양 카르텔의 지부였던 시날로아(Sinaloa)에 속한 채 개인적인 성취의 길처럼 보이는 여정을 걸어왔고, 지금 그녀는 멕시코 전체에 속한다. 어떤 낭비도 피해가지 않는 논리를 실천하며, 누군가가 ‘플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트’라는 시계가 여왕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히 긴 이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다. 산드라 아빌라는 그런 비싼 시계를 179개나 갖고 있었다. 과도하게 넘쳐나는 금고속 물건들은 무기를 낭비하는 것과 상보적이다. 범죄를 저지른 뒤 살인청부업자들은 15개나 16개의 AK-47기관총을 버리고 가는 데, 이는 그들의 무기창고가 무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제 세계의 풍경에서 건 판돈

마약밀매상의 연극성에는 총알들과 고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무기와 변장을 낭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변장을 통해 그들은 일시적으로 그 어떤 경찰단체의 요원이라도 될 수 있다. 카르텔은 사법 권력에 너무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그들이 모든 종류의 규정 제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다. 범죄의 공범인 경찰이 제복을 입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이상하다.

국경의 개념을 뛰어넘어 마약밀매는 사적인 삶, 아직 매수당하지 않은 시민의 삶에서 점점 더 먼 지역으로 유연하게 흘러들어간다. 공적인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카르텔의 두목은 별명말고는 특별한 통행증이 필요없다. 그는 ‘엘 세뇨르 데 로스 시엘로스’ 같이 신정론(神正論)에서 따온 별명을 가질 수도, ‘돈 네토’ 처럼 란체라 곡에서 별명을 따올 수도 있으며, ‘엘 아술’ 같이 만화에서 이름을 가져올 수도 있다. 가장 무시무시한 이름들은 두목들의 실상을 야만적으로 감추며 여성적인 교태를 담는 ‘라 바비’, ‘엘 세하 구에라’ 같은 별명들이다. 수퍼히어로들처럼 마약갱들은 자기소개서가 없다. 단지 그들은 전설을 갖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될 만한 미국내의 두목들이 누군지 모른다. 멕시코에서 그들은 어디에나 있지만 손에 잡히지는 않는다. 그들이 최고로 보안이 유지되는 감옥에 있으나 자개를 붙인 자쿠지가 있는 호화주택에 있으나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건 그들은 결코 작전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폭력을 부정함으로써 익히 알고 있는 공포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카르텔 두목들이 ‘타자들’, 거의 외계인 같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그들을 이국적인 별명으로 기억하며, 그들이 화약을 섞은 재규어 심장 요리나 타마린도와 코카인을 뿌린 왕새우 요리를 먹는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마약갱들의 작전 수위는 너무 커져서 그것을 국내 어디선가 일어나는 기괴하고 먼 일로 인식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소프라노 가 사람들> 은 이제 이웃들이 제공하는 리얼리티 쇼가 되었다.

불법적인 돈이 유입됨에 따라 상황이 바뀌었다. 멕시코의 어떤 도시도 카르텔 두목이나 소령의 죽음이 일어나기에 부족함이 없다. 거기에는 이상적인 식당도 있고, 미니스커트를 입은 웨이트리스들이 브론토사우루스의 갈비요리를 내오는, 플라스틱과 네온으로 만든 성(城)도 있다. 성 옆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대리점과 플렉시글래스 원형지붕이 있는 이슬람 사원을 흉내낸 호텔도 있다. 토레온이나 메리다 같은 도시들이 얼마전까지만 해도 차분한 곳이라는 명성을 누렸던 것은 마약갱들이 그곳에 자신들의 주거지로 만들고, 그곳을 ‘작업장’ 으로는 쓰지 않았다고 여겼기 때문이지만, 그 도시들에서도 역시 희생자 처형은 일어났다.

유래없는 공포의 기운속에서 만 개의 보안 업체들이 성업중이며, 삼천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납치되었을 경우 레이더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쌀알만한 크

기의 칩을 피부 아래에 이식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거나 운 좋게도 우리는 입장권이 없는 복수의 테마파크 같은 먼 곳에서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고 여기는 식의 방어 전략은 실패로 끝나버렸다. 9월 15일 독립기념일 축제 때 모렐리아의 중앙광장에서 아무런 방어도 없던 대중들에게 수류탄 두 개가 던져졌다. 이 공격은 가상의 차원에서 일어난 다른 공격과 겹쳤다. 비야에르모사의 주민들이 자신들이 납치대상자 목록에 있다고 알려주는 이메일을 받았던 것이다. 범죄는 이제 멀리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간주할 수 없다.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멕시코를 양분했던 매우 격렬한 선거전을 치렀다. 그는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군대가 나라를 순찰하도록 명령을 했다. 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이 소식은 카르텔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들이 경찰을 처형하도록 했다. 시체들이 고속도로와 개울에서 발견되는 동안에도 카르텔의 자금줄을 조사하거나 정부 인사중 범죄에 가담한 공모자들을 체포하는 일은 없었다. 가장 최근 마피아와의 연루 때문에 체포된 고위 관료는 키타나 루(Quintana Roo)의 주지사 마리오 비야누에바였다. 그는 제도혁명당이 마지막 대통령이었던 에르네스토 세디요 시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정권 교체 이후 두 번 집권한 국민행동당은 자기 내부를 수사하고, 마약밀매가 번창하도록 하는 정부인사와 마피아간의 연계를 잡아낼 능력이 없었다.

우리는 충격의 새로운 양상을 보고 있다. 우리는 전선이나 후방 등의 개념이 없는 분산되고 지리적으로 해체된 전쟁과 대면하고 있고, 그곳에서는 누가 패거리인지 조차 확신할 수 없다. 누가 경찰이고, 누가 첩자인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범죄와의 연루는 결정적인 중요한 이동에서 나왔다. 수십년동안 우리는 폭력이 내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며 스스로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해왔지만 지금 그 영향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예술의 영역에서는 설치작가인 로사 마리아 로블레스는 공포의 새로운 의미를 미리 예견했다. 2007년 콜리아칸에서 열린 그녀의 전시 <주머니칼들>에는 ‘레드 카펫’이라는 작품이 포함되어 있었다. ‘레드 카펫’은 부자들과 유명인들이 앤디 워홀의 유토피아를 향해 나아가는 통호가 아니라 희생자들을 둘둘 싼 피로 물든 담요들을 의미한다. 2008년에 거의 5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유형지. 반복될 수 없는 범죄의 순간과 마약밀매에 있어서 한계를 짐작할 수 없는 상황들은 이 작품속에서 다른 의미를 획득한다. 피는



자신의 피로 담요를 물들이는 로사 마리아

직선적인 시간으로, 범죄에 의해 삶이 침해받은 공유지로 흘러들어간다.

로블레스는 경찰서의 한 지하창고에서 8개의 담요를 구했다. 담요를 가지고 그녀는 작품 ‘레드 카펫’을 만들었다. 갤러리로 옮겨진 담요들은 드라마틱한 ‘레디메이드’로 전환되었다. 범죄의 증거로 찾아낸 물건. 이는 뒤상이 제임스 엘로이¹⁴⁾와 협정을 맺은

것이다. 로블레스는 불처벌을 이중으로 무대위에 올렸다. 그녀는 해결되지 않은 한 범죄를 보여주었고, 사법체제로 침투해서 철저히 관리되어야만 하는 물건들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가를 보여줬던 것이다.

〈주머니칼들〉은 법적인 물건들을 가져다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작품의 진정한 충격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담요들이 시체안치소에서보다 갤러리에 놓였을 때 훨씬 더 나은 증거물이 되었다는 점이다.

몇몇 논쟁이 있는 뒤 ‘레드 카펫’은 철거되었다. 그러자 로사 마리아 로블레스는 자신의 피로 담요 하나를 물들였다. 그 행위는 긴박한 드라마티즘으로 멕시코의 시간을 정의 내린다. 우리 모두는 그 카펫을 밟을 만한 자격이 있다. 공포는 더욱 흠어지고, 동시에 더욱 가까워졌다. 예전에 우리는 흠뻑 젖은 피가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지금 그 피는 우리의 것이다.

[정승희 옮김]

후안 비요로 - 멕시코의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이다. 2004년에 에랄데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 글을 번역한 정승희는 칠레대학교에서 중남미 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14) James Ellroy: 1943- . 미국 범죄소설 작가.